

##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 3여교우회 회의가 점심시간에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 다음 주일(22일) 2025년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탄 칸타타(12/22)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칸타타를 준비하는 성가대와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칸타타 슈펜데는 우간다(하00-노00선교사님)를 위한 선교헌금으로 사용됩니다.
- 새가족부 부장으로 이홍규집사님이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후보로 임명을 대신합니다.
- 각 부 부서원 임명은 1월 첫 주일(1/5)에 후보를 통해 하오니 부장님들께서는 2025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 주일(22일)까지 부서원 명단을 작성해 각 팀장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금(20일) 19:30에 교회협의회 성탄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Tucholskystraße 40, 60598 Frankfurt am Main)
- 주일학교와 국내선교부에서 양로원사역이 있습니다. (12/23(월) 10:00-11:30, Seniorenzentrum AGO Bad Vilbel Friedberger Str. 175, 61118 Bad Vilbel)
- 내년 초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유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 유신양, 김주은, 고경훈, 김정아, 이주현, 최유진, 천혜지, 정유리)

::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초 목회일정 ::

12/20(금) 19:30 성탄연합예배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2025. 1/5 예결산 위원회 모임 2025. 1/12 예결산 제직회
12/22 성탄감사예배(유아세례) 및 성탄 칸타타 (18:00)	2025. 1/19 예결산 공동의회
12/23(월) 양로원사역(주일학교+국내선교부)	
12/25(수) 14시 성탄축하예배 및 발표회	
12/31(화) 19시 송구영신예배 (웃놀이)	

- 고린도후서 9: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 Korinther 9:15 Gott aber sei Dank für seine unaussprechliche Gabe!

##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목사	이승재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 이정수, 이태성

##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봉사
12.15	김나리	박상기 정복순	11조, 사랑, 희락 하반기셀 5조
12.22	이정수	배형만 한은희	8조, 화평, 인내, 하반기셀 1조
12.29	유 샘	남윤범 현은진	1조, 자비, 양선, 하반기셀 2조

##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 온라인 헌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 E55

:: 온라인 헌금 시 입력 항목 ::

- 십일조 - Zehnte
- 감사헌금 - Dankopfer
-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 월경헌금 - Monatskollekte
-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헌금은 비고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익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Trachtet am ersten nach dem Reich Gottes und nach seiner  
Gerechtigkeit, so wird euch solches alles zufallen. (Matthäus 6:33)

제39권 50호 2024년 12월 15일

## 주일예배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목	도		다함께
※찬	송 Lobpreis	28 장	다함께
※신	양 고 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 시 교 독	Wechsellesung	117문	인도자
대 표 기 도	Gebet		김나리 집사
봉 헌	Kollekte	96장	다함께
성 경 봉 독	Schriftlesung	누가복음 2:8-20	인도자
찬	양 Lobpreis	오 기쁜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성가대
말 씬 선 포	Predigt	목자들의 성탄절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찬	송 Schlusslied	125 장	다함께
※축 복 기 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예배안내

- 주일 예배 주일 12:00 본당
- 섬김 예배 주일 10:15 청소년부실
- 수요 예배 수요일 20: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 초등 주일 12:00 별관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금요일 20:00 본당

## 율법이란...

‘율법’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기에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에서도 ‘율법적’이라는 말은 간간하게 세부 조항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통제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3문의 질문과 그 답입니다.

바로 이 나쁜 느낌이라는 율법을 통해 사람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율법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신 율법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로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사람의 비참에 대하여 깨닫고 사람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보면 ‘율법’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종류와 용도를 파악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 성도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확실한 미래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Faith can give us courage to face the uncertainties of the future.*

- Martin Luther King Jr.

어느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불확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1.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2. 성탄 칸타타(12/22)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주일학교와 국내선교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12/23(월) 양로원 방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하옵소서.
4. 하나님 나라의 비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 교회와 가정이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 문화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 자녀들의 학업의 문, 진로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7. 2025년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기, 그리고 건강을 주옵소서.(유리아)
8. 산모 최혜정사모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옵소서.
9. 알바니아 장대로-허시온, 윤바실-김레이아선교사님 가정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10. 부렐의 엘귀스(목사), 엘티오나(사모)의 삶과 사역을 지키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1.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전파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